

2019.4월 제6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OPINION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회원사 동향

B 한국블록체인협회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4월 제6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OPINION	10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15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23
회원사 동향	56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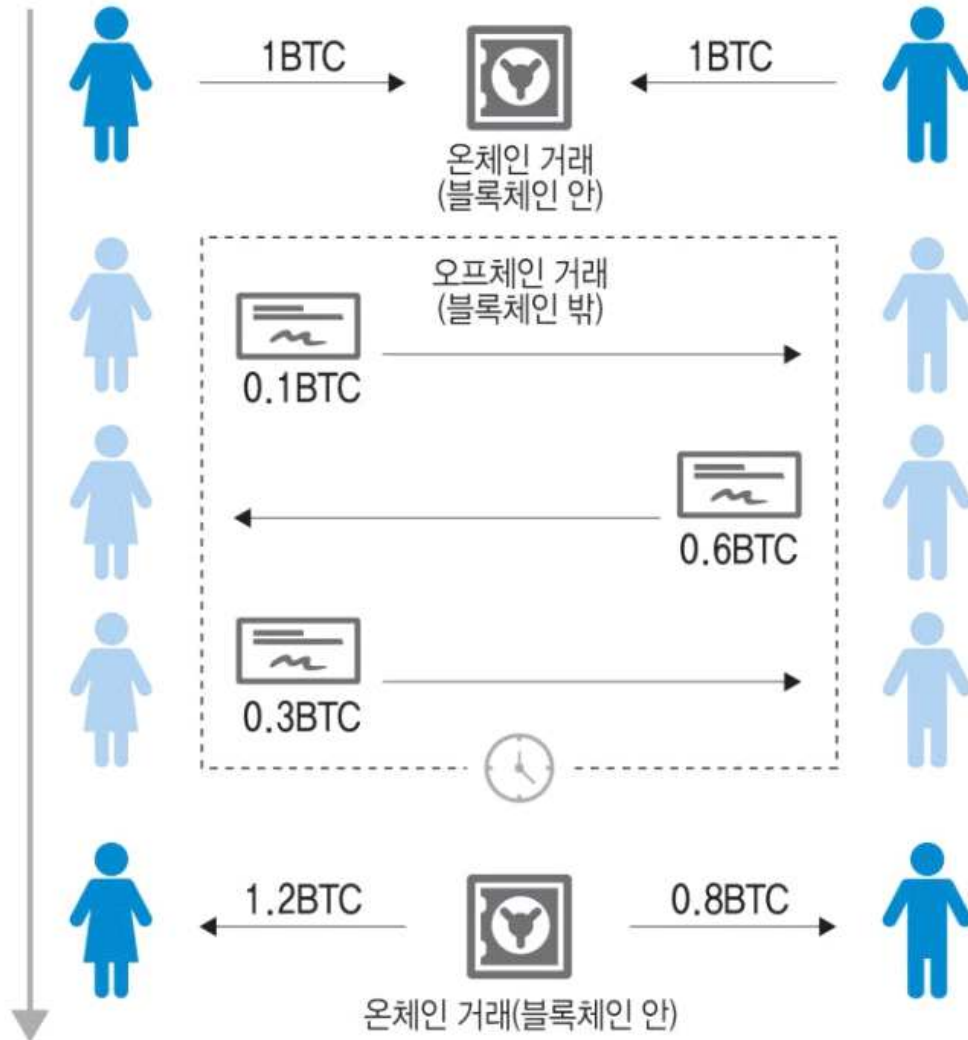
- 9세 소년은 낙서를 팔아 300달러를 벌었다...라이트닝 네트워크

한국블록체인협회

9세 소년은 낙서를 팔아 300달러를 벌었다...라이트닝 네트워크

- 미국의 9세 소년 데니스는 300달러 상당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 팔고 있음
- 데니스가 파는 그림은 두 가지 종류로 1달러짜리 간단한 스케치와 10달러 프리미엄 스케치이며, 사람들이 그림의 대금을 지불하면 데니스는 전자 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그림을 보내주는 식임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데니스는 최근 300달러를 모아 게임기를 사는 데 성공하였고, 비결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다고 밝힘
- 사람들은 데니스의 그림을 사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 서비스 오픈 노드를 사용하였으며, 1달러를 송금해도 단 1%만 수수료로 지급하면 되며, 결제 속도도 몇 초에 불과함
- 데니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수익을 창출한 최연소 예술가로 기록됨
- 2018년 말 미국의 또 다른 아티스트는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 경매에 올렸으며, 작품은 최고가가 아닌 최저가를 부른 입찰자에게 돌아감. 낙찰 가격은 단 0.000000037달러로, 아티스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소액 결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함
-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등 기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확장성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3월 18일 기준, 거래 채널 수는 3만9266개를 기록하여, 한 달 전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함

라이트닝 네트워크 운영방식



■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실생활 도입의 열쇠

- 비트코인은 초당 7건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음에 반해, 초당 2만 4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비자카드와 비교해 3400배 느리고, 암호화폐 리플과 비교해도 200배 뒤처짐
-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량의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거래를 처리함. 이때 비트코인의 블록 1개의 용량은 약 1MB이며, 10분마다 1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어있음

- 이처럼 비트코인은 1초에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어, 이는 소도시의 결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찬 수준이며, 커피 한잔을 결제하는 데도 약 10분의 시간이 걸림
- 이는 항상 논란이 되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인데 그 해결은 간단히 비트코인의 블록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임. 그러나 용량을 늘리는 경우 비트코인의 목표인 탈중앙화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또 다른 고민이 발생하게 됨
- 비트코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컴퓨터로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만약 블록 용량이 확대되면 그만큼 거래를 처리하는 데 높은 사양의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높아지게 되어 결국 고성능 장비를 보유한 소수만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암탸 에페 젠서 코넬대 연구원은 이에 대해 “블록체인 핵심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권력을 분산하여 가지는 것이며, 이 같은 관점에서 탈중앙화와 확장성은 근본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탈중앙화를 희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 비트코인의 이 같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 안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됨
- 중요한 거래 내역만 블록에 저장하고 그 외의 것들은 블록체인 밖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 자체의 무게를 줄이는 것임
- 먼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자들 사이에 결제 채널을 만들고, 거래자들은 채널에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거래를 진행함. 채널이 열

려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지 않으며, 채널이 닫힐 때 최종적인 결제 결과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게 됨. 수십, 수백만 건의 실제 결제는 외부에서 진행되고 최후 한 건의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해 네트워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임.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음

-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초당 10만 건 결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엘리자베스 스타크 라이트닝 랩스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최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는 초당 수천 건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한 달간 50% 급증

-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2015년 2월 조셉 폰과 태지 드리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201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블록체인 포럼에서 비트코인 확장성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며 집중을 받기 시작함. 이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개발자 중심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비트코인의 정식 개발 로드맵에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
- 비트코인 진영은 비트코인 자체의 블록 용량을 늘리지는 측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음

- 2017년 8월 1일 블록 용량 확대를 지지하는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되어 나가게 되면서, 이 기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다양한 버전으로 개선되며 빠르게 진화하게 됨. 특히 간편하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실생활 응용에 속도가 붙게 됨
- 블록체인 데이터 모니터링 사이트 1ML에 따르면 2019년 3월 18일 오전 11시 기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채널 수는 3만9266개로, 수용 자금 규모는 1064비트코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힘. 이는 30일 전과 비교해 각각 43.9%, 53%씩 증가한 수치임
-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 혹은 업체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거래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해 초 시작된 라이트닝 토치 캠페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라이트닝 토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라이트닝과 핫불을 의미하는 토치(Torch)의 합성어로, 핫불 전달자로 지목된 사람은 일정 수량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비트코인을 적립하고 다음 전달자를 지목함
- 이때 전 주자가 적립한 금액보다 0.0001비트코인을 더 많이 적립해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며, 이와 같은 릴레이 방식을 통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홍보하고 자금 규모를 넓혀가자는 취지임
- 현재까지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경영자 자오창핑, 트론 프로젝트 리더 저스틴 선 등 업계 유명 인사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참여 지역도 40개 국가를 넘어서고 있음. 최근에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피델리티 산하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캠페인에 참여한 첫 기관으로 이름을 올림

-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는 “그동안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자금 수용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지도와 수용 자금 규모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평가함



■ 테스트 단계, 넘어야 할 산 많아

-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자들이 결제 채널을 개설하고 1:1로 송금하는 방식을 기초로 하고, 거래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암호화폐가 채널에 예치돼야 하며 거래가 끝나면 채널이 닫히고 최종 결과만이 블록체인에 기록됨
- 이로 인해 충분한 채널 확보와 암호화폐 예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며, 거래 시작 이후부터 종료까지 양측 당사자가 계속 대화창에 접속해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음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자금을 적립해 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소액 결제를 타깃으로 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 거래를 위해 채널마다 거액의 코인을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사용자들만으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이 힘들며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거대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의 근본 목표에 반하는 것임
-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진정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 한계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음
-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개발 목적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지만,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기존 금융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글로벌 은행이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임
-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에 부정적인 각국 정부의 규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넘어야 할 높은 산임

OPINION

-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혼돈 해소를 위한 제언**
 - 정승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혼돈 해소를 위한 제언

글_ 정승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화두가 된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틀림 광풍에 비유되기도 했으나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용 논의가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회사 등에서도 그 도입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블록체인 기술의 의의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방대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중앙서버 없이 작업을 분산처리하여 검증하며(탈중앙성), 그 결과를 분장 저장(탈중앙성)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에서는 분산된 장부의 ‘블록’을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 함으로써, 참가자 간에 중개기관 없이 직접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상에서는 블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내에 저장된 기록에 대한 해킹이나 위변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에 최초 적용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P2P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로 정의하였다.

■ 블록체인의 기술의 종류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블록의 검증에 참여하는 관리 주체(노드)에 모든 거래의 참가자가 권한을 보유하는 퍼블릭(Public), 특정 중앙기관만이 참가자로서 권한을 보유하는 프라이빗(Private), 일정한 컨소시엄의 구성원만이 권한을 보유하는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거래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블록의 생성 대가로 암호화폐 등과 같은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슈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 굳이 암호화폐만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는 운영비용을 운영 주체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은 상호 연동되거나 병존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호화폐의 종류

먼저, 암호화폐를 법화와의 교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첫째, 폐쇄형 암호화폐이다. 이는 실물경제와 거의 연관이 없이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로서, 이는 법화(fiat currency)로 환전이 안 되고, 반대로 법화를 암호화폐로 환전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이다.

둘째, 일방향 암호화폐이다. 이는 법화를 지불하여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지만 교환된 암호화폐는 다시 법화로 교환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이다.

셋째, 쌍방향 암호화폐이다. 이는 법화를 지불하여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를 일정한 비율로 법화와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다음으로, 암호화폐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첫째, 지급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이다. 이는 법정화폐와 같은 강제 통용력을 갖지는 않으나,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시 지급수단(교환의 매개)으로 활용이 가능한 암호화폐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JP모건이 최근에 발표한 JPM 코인이다. JPM 코인은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사적이고, 통제되고, 소유권이 분명한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네트워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둘째, 일반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이다. 이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암호화폐이다. 수탁기관에 예치된 실물금 등 실물자산을 표창하는 증거로써 발행되어 유통되는 암호화폐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즉, 특정 자산을 암호화폐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유의 세분화와 유통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셋째, 증권으로서의 암호화폐이다. 이는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이익을 얻거나 원본의 범위내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권리인 증권으로서 기능하는 암호화폐이다. 즉, 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같이 자금조달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이다.

■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현재 통칭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사용의 범용성과 가치의 안정성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화폐라고 통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와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의 법정통화와와의 교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를 일률적으로 모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불리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통칭을 암호자산(crypto asset)(또는 암호토큰(crypto token)) 등과 같이 화폐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암호자산을 화폐로서 기능하는 암호자산, 증권으로서 기능하는 암호자산, 지급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암호자산, 일반상품으로서 기능하는 암호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장차 암호자산들은 각각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장래적으로는 일반상품 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발달, 현행법 제도와의 조화 및 뒷받침에 따라 증권형 암호화폐로의 전환 또는 교환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탈중개성과 탈중앙성의 가치로 인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이 현재의 인트라넷 수준을 넘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글로벌하게 상호 연결되면서 제2의 인터넷, 신뢰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정 승 화 / 법학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주요논문(블록체인관련)

-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 / 법무부 / 2017.10)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금융산업 중심(금융법연구 / 한국금융법학회 / 2016.8)
- 블록체인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2016.10)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3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과기부·KISA, 블록체인 민간주도 3개 프로젝트 45억 지원

-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힘
- 과기부는 3개 컨소시엄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총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컨소시엄들은 각각 이포넷이 주관하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현대오토에버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SK텔레콤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ID 인증 플랫폼임

■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암호화폐거래소 대표 최초

- 4일 국내 법무법인 광화가 지난 2월 27일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2월 28일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고 밝힘
- 법무법인 측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히면서,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이 지연됐고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출금을 정지시켰으며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왔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는 지적임
- 법무법인 측은 올스타빗과 고객 간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올스타빗의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함

■ 암호화폐 신종범죄 8배증가...檢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암호화폐 관련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한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와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 국내 블록체인 해외 송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 4월로 또 연기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개최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4월로 또다시 연기한다고 밝힘
- 과기정통부는 4월 이후 통합된 기준에 근거해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며, 해당 안건은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미뤄진 바 있음

■ 김포시,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 ‘김포페이’ 내달 발행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가 오는 4월부터 지역 화폐인 ‘김포페이’를 발행한다고 밝힘
- 김포시 지역 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체크카드와 모바일 QR 결제가 모두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고 부정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김포시 측의 설명임
- 올해 11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일반 시민들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 갤럭시 S10 탑재

- 11일 체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자회사인 코인덕의 암호화폐 간편결제 서비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에 탑재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갤럭시 S10 이용자는 코인덕과 제휴된 전국 1천여 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음
- 코인덕 신민섭 대표는 “아직은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누가 결제에 쓰겠냐는 인식이 크지만 앞으로 원화나 달러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를 코인덕에 연동하고 갤럭시처럼 널리 쓰이는 폰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밝힘

■ 경찰, 수천억대 코인 사기 코인업 대표 체포

-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인업 대표 강모씨(53)를 체포했다고 밝힘
 -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힘
- ※ 코인업은 월드뱅크코인(WEC)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음

■ 카카오 그라운드 X, 1,000억원 추가 유치 추진

- 11일 뉴스 1에 따르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그라운드 X가 3월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추가 유치하였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는 1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사용자 계정

을 1,000만 개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직원이 65명인데 올해 큰 폭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함

- 앞서 카카오는 ‘클레이튼(KLAYTN PTE. LTD)’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싱가포르에 설립, 2018년 12월 벤처캐피탈과 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바 있음

■ 부산항만공사, 블록체인 등 활용 항만보안시스템 개발

-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신청한 ‘항만보안 서비스용 데이터 허브 개발’이 선정됐다고 밝힘
- 해당 시스템은 지역 중소기업 2곳, 부산대와 공동 개발할 예정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전자문서 암호화, 사람 인식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함
- 이와 관련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먼저 항만 출입 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함

■ 北 해커조직,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통해 제재 회피

-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등의 수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 그룹 아이비(Group-IB)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의 해커 조직이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암호화폐거래소를 해킹하고, 5억 7천 100만 달러(약 6천 458억 원)를 절취했다”고 지적함

■ ‘국내 개발’ 크립토도저, 크립토키티 꺾었다

- 블록체인 댁(Dapp)게임 크립토도저(CryptoDozer)가 14일 오전 이더리움 NFT(Non-Fungible Token) 기반 댁 순위 1위에 올라섬
- 지난 2017년 이후 1위 자리를 독점해 온 크립토키티를 꺾으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3월 7일 정식 오픈한 해당 게임은 14일 기준 전체 블록체인 댁 순위 30위, 이더리움 종합 14위, 전체 블록체인 기반 게임 7위를 기록함
- 크립토도저 개발사인 수퍼트리의 최성원 CEO는 코인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시 7일 만에 크립토키티라는 철옹성을 넘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크립토도저 팀은 제품 없이 혹은 알파 버전을 통해 우선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타 게임 프로젝트들과 달리 완성된 결과물을 먼저 시장에 내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밝힘

■ NH투자증권, 내달 암호화폐 시세 정보 서비스 출시

- 1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다음 달 중순 ‘NH투자증권 나무’와 ‘NH투자증권 QV’에서 암호화폐 시황 코너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시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고,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 관심이 많아 오픈하게 됐다”며 “다만, 시세 정보만 제공할 뿐 이를 통해 직접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힘

■ 정부, 암호화폐 ‘벌집계좌’ 방지책 마련...은행에 강제회수 권한

-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은행에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관리를 시중 은행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벌집계좌(집금계좌)’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으며, 법안 관계자는 “법안에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정책 제안도 반영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처벌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바른미래당, 아르고 댁 기반 토큰 발행

- 22일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BLOCKO)가 개발한 아르고(AERGO, 시가총액 372위)의 댁인 ‘갓츠퉂(Gotchu)’에서 토큰(바른 츄·가칭)을 발행함
- 갓츠퉂을 정책 기부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해당 토큰을 구매하는 형태로 투명한 정치후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정책 마련과 기부 등 정당 시스템 개혁에 나설 계획이라 밝힘

■ ICO 허용해 달라...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출범

- 25일 IT 조선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학계가 모여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를 공식 출범하고,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에서 대정부 공동설명서를 발표함

- 연합회는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 못 하게 하면서, 벌집 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정책이라며 규탄함

■ 체인파트너스, 필리핀에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인가 획득

- 26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밝힘

■ 삼성 SDS사장 “제조·유통에 블록체인 도입, 생산력 제고 가능”

- 26일 중국 유력 미디어 시나닷컴에 따르면,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26~29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생산·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 그는 “삼성 SDS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제조·유통과정에서 생산력을 제고 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 3월]

- 미국
- 러시아
- 영국
- 스위스
- 볼타
- 프랑스
- 중국
- 일본
- 홍콩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NYT “페이스북, 거래소와 ‘페이스북 코인’ 발행 논의”

- 1일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왓츠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라 밝힘
- NYT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페이스북이 암호화폐거래소와 페이스북 코인 발행을 논의했다”며 “페이스북 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될 가능성이 크며, 달러가 아닌 여러 외화로 구성된 바스켓과 연동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전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사업 규제 법안 도입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이안 칼데론(Ian Calderon)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의회 법안 1489를 도입, 지역 내 암호화폐 사업을 규제할 예정임
- 뉴욕의 ‘비트라이센스’ (BitLicence)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게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는 설명임

■ JP모건, 아즈텍 영지식증명 기술 테스트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JP모건 관계자를 인용해 “JP모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퀴럼(Quorum)팀이 런던 소재 이더리움 프로토콜 개발 업체 아즈텍(AZTEC)의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함
- ※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s) : 검증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패스워드)를 노출하는 대신 자신이 그 비밀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여 검증하는 프로토콜
- 해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퀴럼 플랫폼에서 영지식증명 기술을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의원, 암호화폐 증권 취급 예외 법안 발의

- 2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민주당,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명이 2월 27일 암호화폐의 증권 취급 예외를 골자로 한 5595호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힘
- 해당 법안은 로드아일랜드 통일 증권법 내 “블록체인 토큰 발행자를 증권 발행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동시에 증권법에 구속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발의에 참여한 한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는 소비와 상품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융 투자 수단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함

■ 스타벅스, 벡트 지분 다량 보유...파트너십 목적 취득

- 5일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호들이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최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스타벅스가 벡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 등 현물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투자로 보기에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 스타벅스는 향후 벡트의 결제 솔루션을 스타벅스 매장에 도입할 예정임

■ 미국 콜로라도주 ‘디지털 토큰법’, 이르면 8월 2일 발효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가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 의회가 통과시킨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 (Colorado Digital Token Act)이 이르면 8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함

- 해당 법안은 콜로라도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증권법의 증권 등록(securities registration) 및 증권 중개인과 판매인의 라이선스 등록 의무에서 디지털 토큰 거래자 개인을 면제시키는 내용을 포함함

■ IBM 엑스포스,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 출시 예정

- 5일 포브스에 따르면, IBM 엑스포스(X-Force) 보안 연구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소 글로벌 총괄 찰스 헨더슨(Charles Henderson)은 “새로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선 항상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필요로 해왔다”며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함
- 해당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크립토재킹 공격 건수가 랜섬웨어 공격 건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TUSD, 달러 보유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TUSD 발행사 트러스트토큰(TrustToken)이 사용자들에게 TUSD와 연동된 달러 보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트러스트 토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회계법인 아르마니노(Armanino)와 파트너십을 체결, TUSD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대시보드를 공동개발함

- 라파엘 코스먼(Rafael Cosman) 트러스트 토큰 공동 창업자는 “TUSD 사용자들은 자신의 토큰이 실제 가치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유명 회계 법인이 제공하는 TUSD 관련 자금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고객들을 위한 안정적인 표준일 뿐 아니라 향후 모든 토큰화 자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나스닥, 스웨덴서 증권 토큰화 플랫폼 테스트 진행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Bitcoin Exchange Guide)에 따르면, 나스닥이 스웨덴에서 증권 토큰화 플랫폼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요한 톨(Johan Toll) 나스닥 블록체인 서비스 총괄은 “테스트 중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주식 토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함
- 나스닥은 2018년 10월부터 관련 프로젝트들이 합법적으로 STO를 진행할 수 있는 증권 토큰화 플랫폼(Tokenized Security Platform) 설립을 추진함

■ CFTC 위원장, “블록체인 활용, 금융 위기 대응에 유리”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3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2008년에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했다면, 금융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2008년 금융 시스템 차원의 실패(systemic failure)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 덴버시, 선거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검토

- 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오는 5월 선거에서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 밝힘
- 이와 관련해 덴버시는 “모바일 투표 솔루션 기업 보츠(Votatz) 등과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군인과 가족들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SEC 위원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정책, 필요없다”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설립자 페리안 보링(Perianne Boring)이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지금 바로 미국이 블록체인을 위한 국가전략을 도입할 시기가 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관련 업무를 촉진하는 것보다 민간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대한 민간부문이 정부와 제휴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함. 또 그는 “정부는 혁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진단함

■ IBM 블록체인 총괄 “올해 블록체인, 기업 차원에서 응용될 것”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BM 블록체인 사업 총괄 제이슨 켈리(Jason Kelley)가 인터뷰 중 “우리가 올해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의 트렌드는 단순한 크립토 붐을 넘어 실제 블록

체인 기술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업 차원에서 응용될 것이라는 점이다”고 내다보았으며, 이와 관련해 그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임

■ 암호화폐 미디어 “미국 주요 지역 암호화폐 우호적 조치, 경제가치 인지했기 때문”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가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터넷 3.0 구축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의 주요 주를 중심으로 일부 암호화폐 대상 증권법 면제 추가 등 조치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미디어는 “특히 콜로라도주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 업계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 자금 채널 확대 조치, 불필요한 관리 감독 축소 등이 추가로 이행될 것”이라고 관측함

■ 미국 SEC 의장 “ETH, 증권 간주 불가”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이더리움(ETH) 및 기타 탈중앙화 암호화 자산이 합법적이지 않은 증권발행절차 (illegal securities offering)를 통해 발행됐다 할지라도 이를 증권 (securities)으로 간주할 순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앞서, SEC 기업금융부서 총괄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다”며 “암호화 자산들은 증권으로써 갖춰야 할 조건에 미달된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토큰 구매자들은 프로젝트 소속 개인 혹은 집단이 필수적인 경영 혹은 노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70

년 전 대법원 판례이자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호위(Howey)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테더,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

- 1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시가총액 9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USDT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기존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며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함
- 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테더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한 USDT는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달러 자산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준비금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임
- 테더가 지칭하는 ‘준비금’은 전통 통화와 현금등가물을 포함하며, 때때로 제3자에게 대출한 자산과 미수채권 및 제휴 독립체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임
- 테더는 ‘달러 지급능력’ 및 ‘준비금 미달’ 등 논란과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즈 레이팅스는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 확인을 위해 공식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미국 SEC의장, 암호화폐 시세조작 행위 우려 표명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세조작 행위가 우려되며, 투자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또 특정 BTC ETF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지만 “SEC의 규제를 만족시키는 BTC ETF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임

■ IBM 블록체인 담당자 “금융기관용 스테이블코인 솔루션 개발 중”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BM 블록체인 담당자 제시 룬드(Jesse Lund)가 경제 전문미디어 체다와의 인터뷰에서 “IBM은 시장 수요에 의해 금융기관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전 세계 여러 은행이 자국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엄청난 사업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그는 ‘달러 기반 JPM 코인과 IBM의 솔루션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JPM 코인의 폐쇄된 형태와 다를 것”이라며 “IBM의 스테이블 코인은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월드 와이어(World Wire)가 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의 디지털 자산 ‘대체 가능성(fungibility)’ 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함

※ 월드 와이어(World Wire) : IBM이 2018년 9월 출시한 스텔라(XLM)기반 국제 결제(cross-border payments) 네트워크

■ 미국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중 30~35%, 미국 이외 국가에서 발생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글로벌 주식 지수 상품부서 총괄인 팀 맥코트(Tim McCourt)가 “CM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중 30%~35%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그는 “이 같은 수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와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덧붙이면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량 중 50%는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이뤄진다”고 밝힘

■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기관 퍼시픽 인스티튜트(Pacific Institute)가 블록체인 기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밝힘
- 해당 연구기관은 IBM과 협력해 산하 비영리기관 프레시워터(Freshwater)를 설립,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지하수 사용 현황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빠르게 고갈되는 캘리포니아 수자원의 유통을 최적화하고, 물을 절약하는 동기의 부여를 통해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한다는 설명임

■ 외신 “비자, 암호화폐 TF팀 비밀리 출범”

- 18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VISA)가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포스를 비밀리에 출범했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비자의 최근 채용 공고에 암호화폐 관련 포지션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 중에는 서비스 운영 고위직도 포함됨

■ IBM 블록체인 부사장 “최소 2곳 미국 메이저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고려 중”

-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BM 블록체인 부문 부사장 제시 룬드(Jesse Lund)가 “최소 2곳의 미국 메이저 은행이 현재 JP모건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해당 두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초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힘
- 또한, 그는 “한국 BNK 금융지주의 부산은행, 필리핀의 RCBC(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등 미국 외 6개 은행과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 외신 “IBM XLM 기반 결제시스템 ‘월드와이어’, 휴면 거래 계정 개웠다”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가 “IBM이 스텔라(XLM, 시가총액 8위) 기반 해외 결제시스템 ‘월드와이어’ (World Wire)를 출시한 후 잠들어있던 XLM 대규모 보유 고래 계정들이 깨어났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3분(현지시간) 10억 XLM이 ‘GDKI’ (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에서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지갑 주소 ‘GDQP’ 로 전송됨. 이어서 약 2분 후 ‘GDQP’ 주소에서 1,000,000,331 XLM이 ‘GBDU’ 지갑 주소로 이체됨
- 스텔라 블록 익스플로러 스텔라 엑스퍼트(Stellar Expert)에 따르면, 처음 10억 XLM을 이체한 ‘GDKI’ 주소는 2016년 8월 10일 생성된 주소로, 2016년 8월 30일 기준 총 473억 6,600만 XLM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일 기준 잔액은 당시보다 소폭 감소한 약 436.41억 XLM으로 현재까지 ‘XLM 최다 보유 지갑’ 타이틀을 유지함

■ 시카고 시장 “암호화폐 채택, 피할 수 없는 선택”

- 21일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미국 시카고 시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채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민족국가의 쇠퇴와 동시에 도시국가가 떠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치환경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 누군가는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암호화폐를 통해 생존방안을 강구할 것임. 그때 암호화폐의 채택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CFTC 위원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규제받기 원해”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댄 벌코비츠(Dan Berkovitz)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참여자가 규제를 받기를 원한다

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우리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미국 UPS,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대형 물류업체 UPS가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업체 인셉션(Inxeption)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 ‘인셉션 지피’ (Inxeption Zippy)를 출시함
- 해당 플랫폼은 사용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리스팅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UPS 측의 설명이며, 플랫폼 사용자는 제품 정보 업로드, 주문 예약, 수익 모니터링, 거래 체결, 판매 및 마케팅 관련 분석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백트, 現 기업가치 7.4억 달러 평가...현금 흐름 불안 지적

- 22일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Bakkt)가 지난해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1.82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백트의 기업가치는 7.4억 달러로 평가됨
- 이와 관련해 백트 관계자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백트의 현재 기업가치를 감안할 때 이미 25% 정도의 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판테라 등 외부 기업 또는 파트너에게 매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 앞서 백트 측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스타벅스 등 외부 파트너에 일정 가치의 지분을 무상으로 매각한 바 있으며, 미디어는 관계자를 인용해 “백트가 책정한 계약당 거래 수수료는 0.5 달러로 다소 적은 편임. 일각에서는 이를 1BP(베이스스 포인트, 0.01%)보다 낮은 것

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무역 옵션 상품의 가장 저렴한 거래 수수료도 8BP 수준임. 이를 감안할 때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며, 백트가 향후 서비스 출시에 따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거나, 상당한 양의 계약 물량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함

■ 리서치, “미국 거래소 BTC거래, 글로벌 전체 29% 차지”

- 26일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 Asset Management)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거래소의 BTC 거래량이 글로벌 BTC 거래량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몰타 다음으로 많은 수준의 거래량임
- 이와 관련 “미국 현지 암호화폐 거래량이 글로벌 전체 거래량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생각보다 미국의 BTC 거래 시장은 작지 않다”고 진단함

■ 미국 SEC 위원, “SEC, ICO에 여전히 부정적”

- 2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SEC가 건설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만약 SEC가 2년 전에 좀 더 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ICO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이라며 “투자자들은 SEC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임

러 시 아

■ 러시아, 국가 선거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법안 상정

- 1일 러시아 현지 언론 TASS에 따르면, 드미트리 브야트킨(Dmitry Vyatkin) 러시아 의원이 최근 “모스크바 시의회가 국가 두마 선거에 사용되는 디지털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힘
- 2018년 8월, 러시아 비영리 독립 선거규제기관(NOM)도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의 시범 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외신 “러시아 하원, 디지털 자산 투자자 신분 인증 시스템 강화 고려”

- 7일 러시아 현지 일간지 이즈베스티아(Izvestia)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두마)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분 인증 프로세스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 자산 투자자의 신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수정 중이다”며 “신원이 불명확한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불법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임

■ 외신 “러시아, 디지털 자산 법안, 암호화폐 관련 용어 다수 삭제”

- 25일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더 넥스트 웹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가 심의를 연기한 ‘러시아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 중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등 카테고리 관련 용어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남

영국

■ 영국페이글로벌, 암호화폐-은행계좌 이체 서비스 제공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 소재페이글로벌(Payglobal)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일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과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BTC와 ETH의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핀테크 유니콘, 암호화폐 지원 ‘자동환전’ 외환 서비스 출시

- 6일 경제 전문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즈에 따르면, 영국계 송금 및 결제 전문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가 ‘자동환전’ (Auto-Exchange) 외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환전하고자 하는 법정통화 및 암호화폐 등 자산이 사전에 설정한 환율 및 시세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전을 진행할 수 있음

■ 영국 FCA “설문조사 응답자 73%, 암호화폐 모른다”

- 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발표한 자국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3%가 암호화폐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암호화폐 보유자의 절반이 200 GBP(약 260달러) 이하를 보유하고 있고 50%가 넘는 투자자들이 BTC에, 34%의 투자자들이 ETH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베스토,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ETF 출시...11일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

- 10일 영국 국제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인베스토가 11일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ETF (Invesco Elwood Global

Blockchain ETF)를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보도함

- 해당 ETF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및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척해 온 미국 CME 그룹 등 48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
- 빈 렌(Bin Ren) 엘우드(Elwood) CEO는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활용 범위는 암호화폐보다 훨씬 크다”며 “금융서비스 회사가 이 기술을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각 업종에서 더 많이 응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영국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 1년간 1,500만 파운드 피해 야기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 넥스트웹이 영국의 사기 상담 서비스인 ‘Action Fraud’ 보고서를 인용, 최근 1년간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사기로 인해 1,200명이 1,500만 파운드(약 225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함
- 미디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인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부분의 영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연루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함

스 위 스

■ 블록체인 업체, 스위스 핀테크 업계 점유율 1위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체가 스위스 핀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로 가장 큼
- 현재 총 356개의 핀테크 업체 중 122개가 블록체인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15%) 대비 약 20%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스위스 온라인은행 두카스카피, 자체발행 토큰 두카스코인 출시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온라인은행 두카스카피(Dukascopy)가 자체발행 암호화폐 두카스코인(Dukascoin)을 출시함
- 이와 관련해 안드레 두카(Andre Duka) 두카스카피 최고경영자(CEO)는 “두카스코인은 이더리움 ERC20 프로토콜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함

■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ETH 기반 ETP출시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공식 웹사이트에 ETH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를 출시함
- 상장지수상품(ETP)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상장지수증서(ETC)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해당 ETP 상품은 스위스 스타트업 아문AG(Amun AG)가 지원하며, 자체 지수인 AETH 지수에 따라 거래된다는 게 SIX 측의 설명임

■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스위스 최초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성사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소재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블록키모(blockkimo Ltd)가 현지 디지털 자산운용사 스위스 크립토 토큰스(Crypto Tokens Ltd.), 엘레아 랩(Elea Labs Ltd.) 등과 협력해 스위스 최초의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킴
- 18개 가구와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3백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부동산 건물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진행되었고 해당 거래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 코인 스위스 크립토 토큰(Swiss Crypto Tokens)을 통해 진행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짐

■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기본 블록체인으로 R3 코다 플랫폼 채택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 결제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할 기본 블록체인으로 R3의 코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채택함
- 스벤 로스(Sven Roth) SIX 최고운영책임자(COO)는 “R3의 코다 플랫폼은 이미 보험 분야와 같은 자본 시장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 스위스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암호화폐 결제 지원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스위스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디지털 갤럭시(Digitec Galaxus)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결제 지원 코인은 BTC, BCH, BSV, ETH, XRP, BNB, LTC, TRX, OMG, NEO임

- 이용자는 결제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 를 클릭, Coinify 결제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환전 수수료는 1.5%라는 설명임

■ 스위스, 암호화폐 특별법 채택 동의안 승인...규제 강화 전망

- 21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의 입법 기관인 연방 의회가 2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특별법을 채택하도록 지시하는 동의안에 이사회 99석 중 찬성 83표로 승인하였다고 밝힘
- 해당 특별법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암호화폐를 금융 시장 감독 대상에 편입하고,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 금융 사고, 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스위스 5성급 돌더호텔,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도입

- 28일 스위스 금융 전문미디어 파인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소재 5성급 호텔 돌더호텔(The Dolder Hotel Grand)이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밝힘
- 해당 호텔은 이나페이(Inapay)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결제시스템에 도입한 것으로, 스위스 프랑의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한다는 설명임

■ 스위스 대통령, “블록체인 기업 규제...빠르고 명확해야”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울리 마우러(Ueli Maurer) 스위스 대통령이 최근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는 빠르고 명확해야 한다”며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당국이 두 걸음 앞서갈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스위스 연방 재정부의 문은 열려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부에 도전해 달라”고 블록체인 기업인들에게 호소함

몰 타

■ 외신 “몰타 현지 은행, 블록체인 기업 계좌 개설 거절”

- 1일 몰타 현지 미디어 타임즈 오브 몰타에 따르면, 규제를 피해 몰타에서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이 계좌 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미디어는 “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몰타의 은행들이 리스크 수용범위(risk appetite)를 넘어섰다고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실비오 스킴브리(Silvio Schembri) 몰타 재무부 장관은 “일부 은행들이 블록체인이 아닌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다”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은행과 각종 이해관계자와 해당 안전과 관련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몰타 금융청, ‘사이퍼 트레이스’ 통해 암호화폐 기업 모니터링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몰타 금융청(MFSA)이 자국 내 암호화폐 기업 활동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보안 업체 사이퍼 트레이스(CipherTrace)를 지정함에 따라 사이퍼 트레이스가 몰타 암호화폐 자산 사업의 규제 프로세스와 감사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하게 됨

프랑스

■ 까르푸, 블록체인 유제품 추적 시스템 구축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계 글로벌 대형마트 체인 까르푸(Carrefour)가 최근 자체 블록체인 유제품 공급 추적 시스템인 ‘까르푸 퀄리티 라인(CQL)’ 을 구축함
- 소비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유제품 유통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까르푸 측의 설명임
- 까르푸는 2018년 3월 식품 추적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 11월 IBM 푸드 트러스트(IBM Food Trust)에 가입한 바 있음

■ 프랑스 재정위, “익명성 토큰 금지는 적합한 조치”

- 7일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BTC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산하 재정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 “이용자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함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익명성 기반의 토큰은 향후 다양한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며, “규제 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응용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PwC파트너 “프랑스 중앙은행, 단기간 내 디지털 화폐 발행 않을 것”

- 23일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PwC의 파트너인 폴린 아담 칼폰(Pauline Adam Kalfon)이 “프랑스 중앙은행은 단기간(수개월) 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프랑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실험할 수 있는 적합한 실험체가 아니며, 페이스북, JP모건 등 세계적 대기업에 법정통화의 토큰화 실험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현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임

■ 프랑스 의회, ICO 관련 법안 통과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라우드 펀드 인사이드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공개(ICO) 발행자 및 암호화폐 취급 업체 관련 법안인 ‘PACTE’ 를 통과시켰다고 밝힘
- 해당 법안은 ICO 프로젝트가 현지 은행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시에 암호화폐 발행 기준 수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함

중 국

■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쓰촨에 채굴 장비 10만대 구축

- 4일 복수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잔커툰(Zhan ke tuan)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쓰촨 지역에 새로운 채굴 업체를 창업, 총 10만여 대의 채굴 장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채굴 장비들은 비트코인 채굴에 전량 투입되고 있으며, 총 해시 레이트는 1.33EH/s에 달하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의 3%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는 후오비 채굴 풀과 맞먹는 규모임

■ 바이낸스 CEO “바이낸스체인, 비자·마스터카드보다 빨라..결제 응용 가능”

- 7일 중국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록비트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오창평이 인터뷰 중 “바이낸스체인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구현해냈다”라며 “미래에 결제시스템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 그러면서 그는 “바이낸스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글로벌 전체 암호화폐거래소 거래량 상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 전인대 ‘암호화폐 규제 조례’ 제정 발의...규제 및 단속 강화 골자

- 8일 중국 현지 유력 미디어 평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이자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 관리 시스템 및 규정 제정을 위한 건의’가 공식적으로 발의됨

- 발의자는 스구이루 룽민 그룹 이사장으로 해당 건의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암호화폐 관리 조례’ 를 제정해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는 내용이 담겼으며, 무분별한 알트코인 발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암호화폐 판매 단속과 관련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실림

■ 중국 미디어, “블록체인 자산, 대기업 투자 이어져”

- 11일 중국 인민일보 산하 금융 전문지 차이나펀드가 오늘 칼럼을 통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업계를 향한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며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함
- 차이나펀드는 “현재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ETF가 7개에 이르며, 대부분이 암호화폐 투자 열풍 때 발행됐다”며 “그중 가장 큰 상품의 자산이 1.1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인 낙관 전망을 반영하듯 펀드 운용사들은 관련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덧붙임

■ 중국 양회, 총 23건 블록체인 관련 안건 논의

- 13일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34건의 블록체인 관련 안건 및 관점이 공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해 대비 61.9% 증가한 수치로, 해당 34건의 블록체인 관련 언급 중 23건은 구체적인 블록체인 규제 및 도입 관련 제안이었으며, 11건은 양회에 참가한 전국인민대표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전해짐
- 23건의 블록체인 제안 중 14건은 블록체인 도입, 5건은 블록체인 산업 규제, 4건은 단순 언급이었음

■ 중국, WIPO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 1위...한국은 3위

- 1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 넥스트웹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출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242건을 기록함
- 현재까지 WIPO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국가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중국(790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762건, 한국 161건, 호주가 132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음

■ 중국 최대 민영 택배업체 ‘순펑’, “블록체인 도입으로 통관 시간 최소화”

- 16일 중국 최대 인터넷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동화순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민영 택배업체 ‘순펑’ 이 지난 3월 15일 2018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물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통관 모델을 개발해 화물 통관 수속시간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힘

■ 중국 정부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도입 본격화...일상 생활형 블록체인 수요 증가

- 21일 중국 IT 전문미디어 인터체인퍼스에 따르면 국무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에 편입한 이래 국무원 지도 의견, 발전 계획 등 당국 정책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 산하 부 및 위원회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블록체인 연구기관은 총 8개로, 당국 주도 10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6개가 실질 도입 단계에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 국가 회계조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 프로젝트, 재정부(財政部) 및 민정부(民政部) 프로젝트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음

■ 시진핑 기술 자문 “JPM 코인 발행, 블록체인에 대한 미 당국 긍정적 입장 반영”

- 21일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오비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기술 자문이자 미국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차이웨이더 교수가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JP모건이 글로벌 은행 중 처음으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 을 발행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미국 당국의 긍정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전통 금융 강대국의 또 한 번의 부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국도 다양한 분야 블록체인 활용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일반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힘

■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 “해외 IEO참여, 명백한 불법 행위”

- 21일 코인뉴스는 주요우핑 중국 국가 정보 센터 경제 관리국 부주임은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IEO(거래소 토큰 발행) 참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주요우핑 부주임은 중국 행정부 내 블록체인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 부주임의 IEO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음

1. 최근 유행하는 IEO를 비롯한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모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IEO의 본질은 불법 자금 조달이다. 당국은 현재 IEO등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 활동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해한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현재 당국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 ‘양면금폐’ (블록체인 지지, 암호화폐 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 ICO를 통한 금융 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있으며, 중소 규모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동시에 적자생존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선별되고, 건강한 생태계와 신기술의 혁신성이 유지되고 있다.

3. 당국은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치 효율의 혁명을 일으킬 기술이다. 앞서 유행했던 ICO, STO와 마찬가지로 IEO는 아직 기술적 및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맥이 끊겼다. 스캠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금지를 통해 기술·논리적 결함을 채울 수 있다. 한마디로 문제는 현재 이 분야에서 권위를 갖춘, 동시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응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적극적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점진적인 블록체인 경제 도입을 통해 기술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때 비로소 블록체인은 대중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 드래곤 EX 해킹, 북한 소행 가능성 제기

- 29일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가 보안 전문기업 치후 360을 인용해, 최근 발생한 드래곤 EX 해킹 사건이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당시 해당 해킹 사건의 배후로 라자루스로 불리는 북한 해커 집단이 지목됨
- 이와 관련해 치후 360은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코인체크 등 5개 거래소 해킹 사건에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발견됐다”고 진단함

일 본

■ 일본 4개 지방은행,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플랫폼 출시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투워치에 따르면, 일본 이와테은행, 아오모리은행, 아키타은행, 야마나시 중앙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이 3월 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공동 출시함
-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 화면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일본 엔터테인먼트 그룹 'Mezzo', 클럽 등 직영점서 BCH 결제 지원 예정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그룹 메조(Mezzo)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 4곳에서 2019년 4월부터 BCH결제를 지원할 예정임
- BCH 지원 예정 점포 4곳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으로 알려진 V2, Ele, Villa 3곳과 Ruby 커피숍 등임. 코인마켓캡 기준 BCH는 현재 0.71% 오른 132.97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일본 SBI그룹,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장기 전략계획 발표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대형 금융기업 SBI 그룹이 장기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계획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 구축 ② 암호화폐 확산 원인 분석
 - ③ 블록체인 관련 펀드 설립 ④ 디지털 자산 기반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
 - ⑤ 암호화폐 플랫폼 SBIVC 정식 출범일 3월에서 7월로 연기
 - ⑥ 국가 간 송금서비스 제공업체 SBI리밋 송금서비스 XRP도입

■ 일본 FSA관계자 “빠른 시일 내 ICO관련 조례 발표 예정”

- 7일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국제금융협력센터 사무국 바바 유우지 차장이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금융청은 빠른 시일 내에 ICO 관련 규제 조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 경찰청 “작년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169건...피해 금액 677억엔”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투치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이 최근 ‘2018년 사이버 위협’ 관련 통계 보고서를 공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증가 경향에 따라 작년 한 해 역대 최다인 9040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경우가 169건, 연루된 금액이 약 677억 엔으로 나타남
- 특히, 이 중 96%에 해당하는 약 650억 엔은 2018년 1월과 9월에 발생한 코인체크 거래소와 자이프 거래소의 해킹 피해 금액으로 나타남

■ 일본 정부, ‘암호화폐 투기 조장 광고 금지’ 현행법 개정 추진

- 15일 일본 현지 미디어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개최한 내각 회의에서 현행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의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거래소 및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제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개정안 통과 시 일본 현지 기업들은 명칭에서 ‘가상화폐’ 를 ‘암호화폐’ 로 변경할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되며, 기업들은 암호화폐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프로모션 진행이 불가함

■ 일본 ‘금상법 개정안’ 통과...2021년 10월 내 거래소 라이선스 등록 의무화

- 15일 일본 현지 미디어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 규제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2020년 4월부터 현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규제 기관에 사업을 등록한 후 18개월 내로 반드시 라이선스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도함

- 미디어는 “만약 2021년 10월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암호화폐거래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연함

■ SBI 그룹, 자회사 설립...블록체인 송금서비스 ‘머니탭’ 제공

- 20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SBI그룹은 전날(19일) 지분 100%를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개인 송금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존 개인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머니탭(Money Tap)’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머니탭은 SBI 홀딩스와 Ripple, 주요 대형 은행 등이 투자한 SBI Ripple Asia가 운영했지만,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설명임
- 머니탭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서비스로, 스미신 SBI넷을 비롯한 현지 3개 은행을 통한 거래가 가능함. 또한, 계좌번호가 없어도 QR 코드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들지 않음

■ 일본 부총리 “가상화폐 명칭 변경, 세법 적용에는 변화 없어”

- 20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개최한 참의원 재정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내각 회의가 가상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기존 자금결제법 상 가상화폐(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이며,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암호화 자산)는 여전히 기타 소득 항목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대형 증권사, 블록체인 도입

- 25일 일본 머니파트너스 그룹이 주주총회를 열고 일본 대형 금융기업 다이와증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다이와증권에 블록체인 기반 거래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임
- 머니파트너스 그룹은 자회사 머니 파트너스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에 거래소 라이선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임
- 이와 관련해 현지 미디어는 일본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인 다이와증권의 직간접적인 암호화폐 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일본 금융청,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 희망 기업 140개 이상”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일본 금융청(FSA) 암호화폐 기업 사업자 등록 현황을 인용, “27일 기준 FSA가 접수한 암호화폐거래소 신규 사업자 등록 건수는 23개로, 이 중 일본 암호화폐거래소 디커렛(DeCurret), 라쿠텐 월렛(Rakuten Wallet)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함
- 이로써 일본 내 당국 정식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거래소는 19개로 늘어남. 이와 관련 FSA는 “최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일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140개 이상”이라고 설명함

홍콩

■ 홍콩금융업무역장, 4월 블록체인 금 투자상품 출시

- 5일 홍콩 현지 미디어 홍콩중통사에 따르면, 최근 장더시 홍콩금융업무역장 이사장이 최근 “홍콩금융업무역장은 오는 4월 블록체인 기반 금투자상품 ‘골드Zip’ (GoldZip)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운영할 고위직 임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골드Zip은 블록체인 기반 실물 금 투자상품으로 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연동되며 1회당 최소 거래 단위는 1g, 최초 투자액은 최소 320 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45,878원)로 규정함

■ 홍콩, 첫 가상은행 라이선스 획득 기관 발표...스탠다드차타드 합작사 등 포함

- 27일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오후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가상은행(온라인 상에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 라이선스 획득 기관을 발표함
- 해당 기관은 중국은행(홍콩)과 징둥수커 및 홍콩 자딘 매디슨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사를 비롯해 영국계 대형 금융사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 Bank)와 홍콩텔레콤(HKT)이 설립한 합작사, 세계 2대 중국계 핀테크 기업 중안보험과 홍콩 투자 기업 시노링크(Sinolink Worldwide Holdings)이 설립한 ‘중안가상금융’ 임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TO 관련 규정 발표

- 28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증권형토큰 공개(STO)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STO는 현지 ‘증권 및 선물 규정’에 정의된 ‘증권’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 증권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성명함

- 이번 발표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현지에서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판매제한 : 중개인은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등록 및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2. 실사 보고 : 중개인은 관리자, 연구개발팀, 발행인 등의 배경 및 재무안정성 등을 포함한 적절한 실사 보고를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투자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 : 중개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STO 관련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STO는 새로운 모금 방식이므로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 거래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함

—
회원사 동향
[2019. 3월]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ETH 콘스탄티노플-상트페테르부르크 업그레이드 지원

빗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콘스탄티노플-상트페테르부르크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지원

이번 업그레이드는 1일 새벽 4시 30분경에 진행되었으며, 코인마켓캡 기준, ETH는 1.04% 내린 138.25 달러에 거래됨

신세계 · 빗썸 제휴,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

신세계 면세점이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손잡고 국내 면세점 최초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면세점 상품 구입 시 보유하고 있는 빗썸 캐시로 결제할 수 있음

빗썸 캐시는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KRW) 포인트를 합친 자산임

두나무,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19일 출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9일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정식 출시
두나무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이 개발한 루니버스는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으로 2018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베타 서비스를 거쳤으며, 19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함

코인플러그, KB 국민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웹·앱 인증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코인플러그가 모바일 앱에서만 구현되던 ‘블록체인 인증 솔루션’을 웹과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

이를 통해 코인플러그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KB국민카드와 진행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확대 프로젝트’를 완성함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함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앱과 웹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인증 채널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코인플러그, SKT와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개발

코인플러그가 SK텔레콤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기반 ID/인증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이번 프로젝트는 ID/인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금융, 통신, 교육 분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이 주관하는 8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진행함
컨소시엄은 표준화와 확장성을 고려한 탈중앙화ID(DID) 인프라와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발(통신)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개발(금융) △대학/협·단체 제증명 발행 및 관리 서비스 개발(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선보임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4월 제6호